

ArtistS 138

세상을 향한 물음표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필터는 젊은 작가의 것이다.
국제갤러리와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미술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젊은 작가 10인의 현주소.



10 x New WAVE

눈송이를 걷는 속도

다시 처음부터 세계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호기심을 갖고 하나의 대상을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바라보는 순간이다. (A Snowflake)를 기획하며 만난 네 명의 작가들은 2017년 서울의 어딘가에 각자 있다가 전시를 위해 함께 뛰어 들었다. 그러다 초여름이 한창인 지금은 같은 시간 공간을 점유하며 '보는 일'을 함께 한다. 김익현, 박정혜, 이미래, 최윤 작가와 여러 선택을 나눌 때 (A Snowflake)전(국제갤러리, 7월 2일까지)은 맥거핀이라고 생각했다. 눈에 풍쳐 가리킨 돌멩이를 대신 맞아줄 것만 같은 커다란 눈사람이었다.

그런데 눈사람이 뭐고 눈송이는 도대체 뭘까? 영국의 수학자 이언 스투어트가 쓴 책 《눈송이는 어떤 모양일까》를 전시의 출발점에 데려온 나는 작가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스스로 녹아버리는 눈송이 결정체를 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과연 이 작은 입자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논했다. '젊은 작가'라는 프레임으로 이들을 뭉뚱그리지 않고 문제를 복잡하고 의문스럽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

(A Snowflake) 오픈 며칠 후 작가 최윤은 말한다. "눈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시를 준비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언 스투어트의 책을 도서관에서 다시 빌려 보는 것이었어요. 수학자는 우주에서 사막까지 점프, 점프를 해요. 더 멀리 다른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전시장에 있는 최윤의 작업 '광고판 1, 2'는 폭포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중국산 광고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 안에 소주 광고를 하는 수지와 송충기 기어문 쓰고 있는 스티커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작가 최윤이다. K1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액정 기포 미래 진열'과 '내가 낚시에 따라 변할 사람 사람 갈소', '크리스마스 트리'와 SS 시리즈 6편은 한국 리얼리티의 수상함에 대한 최윤의 변화무쌍하면서도 지속되는 수행적 목소리다. "일상생활한 것을 질문해 나가면서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해보고 해요.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 한심한게 생생한 것, 미술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당대 풍경 속에서 제가 스스로 뛰어 들어보는 거죠."

'질문한다'는 행위는 왜 필요한 것일까. Q(질문만) 있고 A(답변)가 없다면? Q만 계속해서 진전한다면 건널 수 있을까. 불현듯 질문은 타인에게 하는 것보다 세계의 바깥, 혹은 불특정 대상을 향해 하는 것이 한결 재미있다는 각성이 찾아온다. 완벽한 답을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로망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작가들이 오늘날 보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하는 '진짜' 질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음표가 필요했다. 확정적 언술을 의심하면서도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지금의 작업을 보고 싶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A Snowflake) 전시장에 놓인 김익현의 사진, 박정혜의 회화, 최윤의 사물과 영상, 이미래의 조각은 서로의 작업을 향한 '시선'을 공유한다. 온전히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 일부를 나눈다. 전시장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미래 작가가 만든 '히스토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섬들의 일부와 김익현의 Fig(도판)'라는 제목을 가진 일련의 흑백 사진이 함께 보인다. 박정혜의, 위로 발사될 듯한 미로 형상의 컬러풀한 그림 반대편에 김익현의 실재했던 일제시대 폐광을 찍은 개체한 사진이 위치한다.

사진을 찍고 연구하는 김익현은 말한다. "사람들은 왜 동굴을 붙가, 최초로 동굴 사진을 찍은 나다르르는 왜 깊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를 가져갔는지 몇 해 동안 연구해왔어요. (하멜 표류기)같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감각에 관심이 있는 한편 아카이브라는 행위에도 큰 매력을 느낍니다." 김익현이 말하는 "겪은 것과 겪지 않은 것의 갭(Gap)" "점프의 감각이 새로운 보기의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인정은 매우 실증적이고도 경험적으로 시대와 시선의 총위를 조직해낸다. 김익현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연구하는 것을 뼈대로 깔고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둘러싼 '소실점'을 동시에 연구한다. 전시장에 놓인 그의 검고 거대한 동굴 장면의 사진 제목은 매우 길다. Fig. Print 001 1.p.1.

KWAK KI GUN



젊은 작가 4인(최윤, 김익현, 박정혜, 이미래)은 질문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문의 구조를 만들었다. 또 다른 질문을 사유하게 하는 질문, 신선한 불응품의 구조를 기획자 전시원이 되겠다.

158x197.5(cm) 2016이라는 제목에는 실제 폐광을 찾아 대상을 촬영한 시간인 2016년과 사진 사이즈가 기록되어 있다. 김익현은 전시장 벽면에 붙여 전시한 후 일부 찢긴 채 보관하고 있던 동굴을 촬영한 사진을 이번 전시에서 새로이 화면에 담았다. 사진은 또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다.

박정혜는 천천히 그러나 리듬을 타며 말을 건넌다. "눈송이라는 자연현상이 그렇듯이 현실에 놓인 것의 결과와 가상의 형태를 상상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워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는 어떤 걸까 생각해요. 세상을 회화로서 어떻게 투명하게 볼 수 있을까 궁금한 거죠." 보면서도 이야기하고,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전시장의 공기와 소리를 감각적으로 읽어내는 작가 박정혜의 그림은 한 화면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그려진 것이냐를 질문한다. 그의 그림이 만들어내는 한순간은 이야기도 감각도 재현도 추상도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작가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충동을 가장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회화는 '정지된 장면'이라는 전통적인 매체예요. 궁극에 어떤 회화를 제가 보고 싶으면 오래 생각해요. 비현실적인 장면과 상황을 혼동할 때가 있는데, 문자가 약속된 코드인 회화도 하나의 언어라고 보고 있어요." 박정혜는 전시장에 놓인 'No Desert & No Cry' 연작에서 사막과 눈물을 한 공간 안에 넣는다. 화면 안의 어떤 요소도 서로에게 종속적이지 않은 형태를 만든다. 작가는 수직과 수평, 원근법과 미래의 '보는 방식' 등 오늘날, 또 앞으로의 한 독립적 개인이 어떤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이미래는 작가의 정령처럼 따라다니는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를 개별적 파편이지만 서로 붙었을 때 한 몸이 되는 조각으로 만들었다. 몇 점으로 나뉜 조각들의 이름은 '히스테리, 엘레강스, 카타르시스' 성물이다. 따로 또 함께 서 있는 조각은 '독립성'에 대한 연구로 보인다.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등 재료 연구를 진행하는 작가는 인체 사이즈

의 조각들이 각자 무엇을 자기화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연구한다. 이미래의 조각에 많은 말이 달라붙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작가의 단서는 비밀스러우면서 선명하다. 작업 '빠가 있는 것들-바디 파츠는 빠져볼 보이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작가가 '살'로 만들어낸(유투) 것이다. "열반(니르바나) 상태에 있는 것과 명칭해 보이는 것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늘 흥미롭지 않나요? 체 조각이 귀어움과 박력 사이에 있다고 인젠가 말한 적이 있는데 너지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 또는 힘의 방향이 일순간에 변화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요." 그의 둔탁한 조각들 한 면에는 일본 만화에서 떼어져 나온 문장이 각인되어 있다. '계속' 이라거나 '같이 있고 싶다고'라는 문구가 뒷면에 적혀 있다. 이미래는 광정한 에너지 상태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 인간이 돌변하고, 차가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 송고함과 어색함, 존재하지 않았다가 나타나는 것,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

〈A Snowflake〉 전시장에 살고 있는 질문의 그늘은 '질문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질문의 그늘 사이로 2017년의 젊은 작가, 화이트 큐브, 갤러리, 큐레이팅, 디스플레이, 인터넷, 미술의 매체 등 너무나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간다. 그와 동시에 네 작가들의 작품 사이를 걸어갈 때 여러 질문이 뻗어뻗어오르며, 도저히 가지런해질 수 없는 것이 라고 다시 적어본다. 얼마 전 읽고 있는 책의 한 구절에서 모래는 수련을 그리다가 눈이 내배져서 용기를 내 녹내장 수술을 했다는 대목을 보았다. 별강게 그려졌던 정원의 더리는 다시 녹색 빛을 되찾았다고 한다. 어떤 것이 그가 자신의 눈으로 본 진짜였을까? 오역스 위즈는 아니므로 우리는 질문의 구조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만 한다. ▼

글 원시원(사창각 공동 디렉터, 큐레이터) 에디터 윤혜정

인공의 세계와 생태계의 상관관계를 회화로 묻는 박정혜, 사전을 기반으로 리서치 및 아카이브의 방식을 탐구하는 김익현, 온-오프라인 세계의 부속물을 재료로 영상, 퍼포먼스, 조각 등을 다루는 최윤, 조각의 물질과 재료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제안하는 이미래.(오른쪽,